

보기문제

문학에서 3점 포지션을 받고 있는 보기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서 보기 문제에 대해 잠깐 다루긴 했는데 더 깊게 더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기에 따로 분류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 기출을 풀며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나요? 보기문제는 항상 발문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한 두번씩 낼 법도 한데 유달리 보기 문제는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보기문제의 선지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보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출제자가 생각한 기준대로지문의 표현들을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의 구조가 지문에 있는 실제 표현+ 보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선지의 주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선지의 주관이 보기와 연관이 된 채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여러가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각각의 표현에 적절하게 매치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적절치 않은 선지가 4개나 되는 가장 적절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선지의 주관 대부분이 보기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면 결국 **측정하고자 하는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표현의 매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는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보기 문제의 판단 과정>

그래서 우린 보기 문제를 판단할 때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의 일치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없는 내용이라면 1차적으로 적절치 않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니까요.

만약 여기서 선지의 주관이 보기와 정반대라면 그 선지는 지문에 어떤 표현이 나와있건 절대 적절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보기의 주제성과 반대되는데 적절하다면 보기의 기준 외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니 '객관성' 확보에 실패한 것이겠죠.

만약 여기서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진 않으나 보기의 주제성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확률은 낮지만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선지 내에서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안된다면 앞에서 배운 일관적인 체계의 판단대로 사실의 주변부로 가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 선지구성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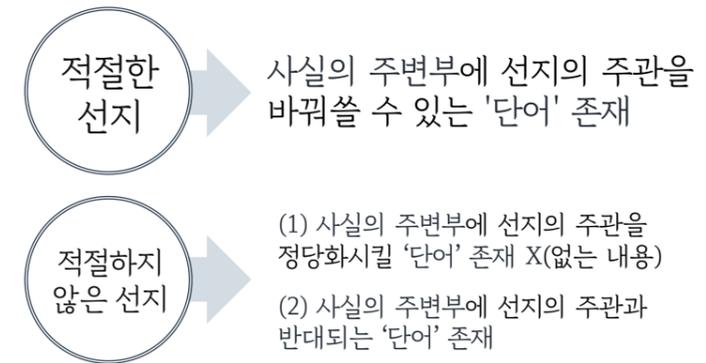
$$\boxed{\text{선지}} = \boxed{\text{사실}} + \boxed{\text{주관}}$$

1번 유형의 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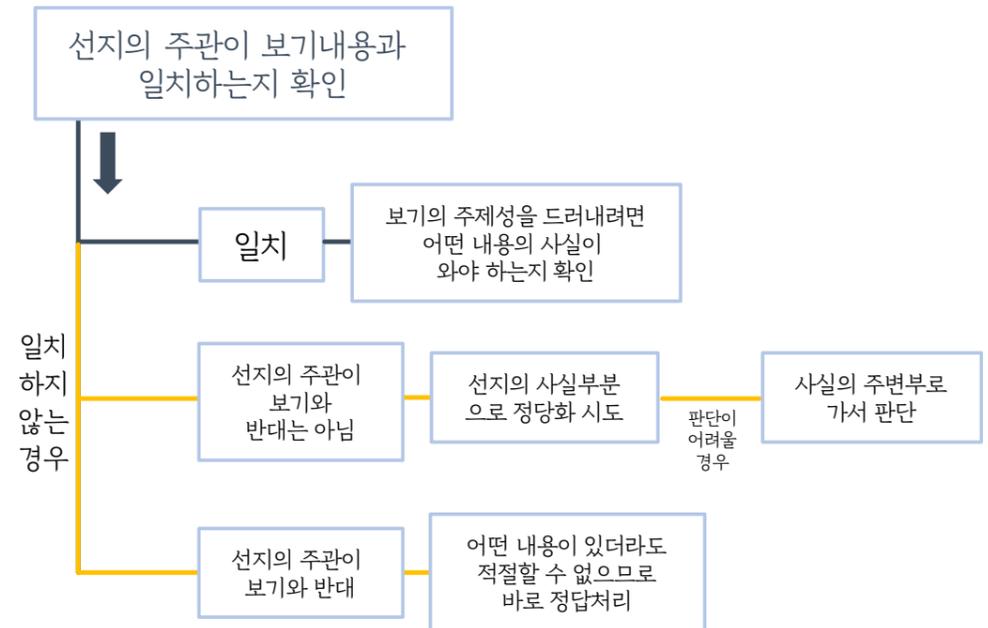
→ 선지의 사실만으로 선지의 주관을 판단할 수 있는 선지

2번 유형의 선지

→ 선지의 사실만으로 선지의 주관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실의 주변부로 가야 하는 선지



◆ 보기문제의 판단과정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까?>

결국 보기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보기의 주제성을 지문의 여러 표현들에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정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선지를 보고 음 이 표현이 보기의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 아! 사실의 주변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 보기의 이런 부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네! 어떤가요? 결국 우리는 선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 자연스럽게 선지의 사실 부분과 보기를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문제의 큰 특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기문제는 지문에서 굵은 글씨로 보기 문제의 사실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만약 굵은 글씨의 내용들을 최대한 보기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지문을 읽으며 하고 간다면 그냥 지문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것 보다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겁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 않으면 그냥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지문을 한번 읽고 선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또 지문으로 넘어가 보기와 표현을 매치시키는 작업을 할테니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럼에도 제가 앞에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문을 읽었다는 전제로 일관적인 체계의 판단을 했던 이유는 이런 판단 능력이 갖춰져야 지문을 읽을 때 바로 보기와 표현을 매치시키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지를 보고 일관적인 체계의 판단을 거쳐 선지의 사실 부분, 사실의 주변부로 선지의 주관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할 행동영역이니까요. 이걸 선지에서 명시화를 시키고 행동영역을 구축한 것이 일관적인 체계의 판단이고 지문에서 굵은 글씨로 바로 표현과 보기를 매치시키는 것이 보기 문제의 행동영역입니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어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은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핵심 정리

1. 일관적인 체계의 판단을 통해 지문의 표현들을 보기와 매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서 보기 문제의 행동 영역을 연습해보자.
2. 보기 문제의 사실 부분은 지문에서 제시해준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지문의 표현과 보기의 매치다.

지문 (가)

문제 풀기 전

지문에 명확히 행동반경을 표시해준 문제는 33번뿐이다. 그러나 33번 문제가 적절치 않음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므로 해당 표현만을 보고는 어떤걸 물어볼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보기에 대한 굵은 글씨가 없다. 보기를 읽고 아 보기의 이 내용이 지문에 이거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게 있다면 의식하고 밑줄 치고 가면 좋지만 그게 안보인다면 빠르게 읽어내려 가고 선지에서 일관적인 판단체계로 판단하고 가자

1연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지문해설 해당 연에는 33번에 대한 행동반경이 없다. 보기만 최대한 연결시켜보자. 보기의 주제가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였다. 대충 무너지는이라는 표현이 보기에서 말하는 결핍일거다. 보기의 주제성이 결핍이니 지문에 나와있는 모든 부정적 표현은 결핍에 관한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본인의 인생경험에 대한것이니 시에서 나오는 모든 시간 관련 표현은 인생을 표현해야만 한다. 서른 나문 해라는 것도 아마 인생을 나타내는 표현일거다. 이정도까지 못해도 되긴 하는데 결핍정도만 잡고 가면 훌륭하다

2연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지문해설 굵은 글씨가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 달리 잡을게 없다. 그냥 보기랑 연결되는 포인트만 최대한 찾아보자. 피려던 뜻이 굳었다는 것도 뭐 부정적인 말이니까 결핍과 관련된 표현이겠지.

3연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지문해설 보기의 주제가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니 시에서 나온 모든 의지표현과 지향 표현은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뜻해야만 한다. 여기서 섬으로 가자는 건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겠구나 이정도로 잡고 가면 된다

4연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지문해설 3연과 마찬가지로. 그냥 다 이해할 필요없다. 어차피 시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라고도 안했고 단지 보기랑 지문 연결되는 포인트만 연결해보라는거다. 비취빛 하늘이 무슨 의미인지 눈빛 파도가 무슨의인지 몰라도 된다. 그냥 눈빛 파도에 적신다라는 지향 표현이 있으니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겠구나~ 정도로 파악하면 된다

5연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지문해설 연륜은 보기에서 결핍을 발견한 표현이라고 하니 그 결핍을 끊어버린다는 표현은 보기에서 나온 결핍을 벗어나려는 의지겠고 불꽃처럼 살리라도 지향표현이니 결핍을 벗어나려는 의지 정도껏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뭐 초라한 이라는 부정적 표현도 결핍을 표현한거겠고!

1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지문해설 보기에서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라고 하니 아마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샀다라는 표현은 보기에서 말하는 편리함을 말하는 거 같고 이걸 뛰어내리고 싶다고 부정표현으로 쓴 건 아마 결핍을 나타내는 표현일 거다.

2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지문해설 (가)와 마찬가지로 지향표현은 모두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여야만 한다.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거나 나를 달구고 버리고 뭐 낫으로 바꾸고 싶다는 표현은 모두 편리함에서 느껴지는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3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지문해설 전부 똑같다. 표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냥 계속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 하는구나~ 정도만 잡고 내려가면 된다.

1번선지해설

판단과정

보기에선 축적된 인생경험에서의 결핍을 발견했다고 나와있다. 선지의 주관에 이를 나타내므로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변변치 않은 경험하고 결핍이 같은 말이라고? 이정도면 같은 말이라고 처리할 수 있다. 결핍이 있는게 좋은 경험은 아니니 변변치 않은 경험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서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라는 표현이 있으니 선지의 사실 부분에 결핍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도 인생을 표현한 단어만 나오면 정당화될 수 있다.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인생을 나타내는 '서른 나문 해'라는 표현도 있고 이를 '초라한'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연결시켜주니 당연히 이는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판단 가능한 선지였다.

2번선지해설

판단과정

보기엔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라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어낸다는 것도 이를 위한 수단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는게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어서도 될 수 있고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됨에 따라 벗어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기랑 충돌은 하지 않지만 보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선지성립조건

보기에 해당 내용이 없으니 선지의 주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선지의 사실 부분이나 그 주변부에 존재해야 한다.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만으론 불꽃이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의 주변부로 가야 한다 사실의 주변부에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도 나와있지 않으며 이를 끊는다는 표현도 없으니 해당 사실의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표현이 없다. 그러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치 않은 선지다.

지문

초라한 ~~경력을~~ / 육지에 ~~박은~~ 다음 /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 끊어 ~~버리고~~ /
 나도 ~~또한~~ / 불꽃처럼 / 열렬히 ~~살리라~~

판단평가

지문으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했던 유형의 선지다.

3번선지해설

판단과정

보기에서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는 즉 현재 결핍되어 있는 가치라는 거니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다.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서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라고 하니 이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의지 표현과 지향을 드러내는 표현은 보기처럼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지의 사실 부분에 어떤 의지표현이 존재하기만 하면 선지는 성립한다.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찾아가고 싶다라는 의지표현이 있으므로 해당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한 선지 유형이었다.

4번선지해설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에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지다.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서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라고 하니 이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의지 표현과 지향을 드러내는 표현은 보기처럼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지의 사실 부분에 어떤 의지표현이 존재하기만 하면 선지는 성립한다.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걸려 있고 싶다'라는 의지표현이 있으니 선지의 주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한 선지의 유형이다.

5번선지해설

판단과정

보기에서 두 지문 모두 결핍에 관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지성립조건

굉장히 허들이 낮은 선지다. 사실 이 지문이 결핍에 관한 시니 이 시에 나와있는 표현들은 대부분 결핍을 드러내야 한다. 굳이 범위를 더 좁히자면 부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다.

풀이

(가) 시의 배경인 육지는 당연히 결핍을 상징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추가로 지나간 시간, 자신의 축적된 인생 경험(결핍)을 막아둔다고 했으니 당연히 결핍을 상징하는 공간일테고 에서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라는 부정표현을 사용한 버스는 당연히 결핍을 상징하는 공간일거다.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판단 가능한 선지의 유형이었다.

2022 6월의 현대시입니다. 말투가 조금 낯설긴 하죠? 제 기출 분석집에서 사용했던 풀이를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통해 선지의 성립 조건까지 기준으로 세울 수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는 더 쉽고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난이도가 높았던 6평의 현대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를 통해 어느정도 선이 보일겁니다. 적절치 않은 선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선지의 사실과 선지의 주관도 일치하지 않을 때

2.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하나 실제 선지의 사실 외의 다른 지문의 표현이 해당 선지의 주관과 일치할 경우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혼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한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짹짹 얼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튀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보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한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가) 지문

- 1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지문해설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 보기 문제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건 굵은 글씨를 보기의 내용과 빠르게 매치시키면 된다. 활자와 하늘아래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으로 대비시키는 것을 보고 의사소통이 제한된 모습이라는 주제성과 연결되는 구나 이 정도로 처리하고 가면 된다.

- 2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지문해설 문제로 물어보는 부분 없다. 빠르게 읽고 넘어가자.

- 3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지문해설 중간에 있는 두줄은 어차피 물어보고 싶은 핀트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와 고요함만 보기랑 매치시키고 가면 된다. 글의 주제성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의사소통이 제한된 모습일테고 이를 고요함으로도 드러내주고

- 4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지문해설 물어보는 부분 없다. 스킵하고 빠르게 넘어가자.

- 5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지문해설 물어보는 부분은 하나다. 글의 주제성이 의사소통이 경직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니 당연히 나의 영이 우습다는 표현은 의사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보기의 내용과 대응될거다. 이 정도로 읽고 빠르게 넘어가면 된다.

(나) 지문

- 1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 훈련받나봐, 아니아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지문해설 “㉠㉡- 적절치 않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어볼 수 있다. 즉 선지를 먼저 읽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볼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냥 가볍게 읽되 선지 판단할 땐 앞서 배운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를 통해 판단해주면 된다.

- 2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고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지문해설 위와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핀트가 ㉠㉡ 문제 뿐이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선지에서 판단하자.

- 3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얼고.

지문해설 굵은 글씨로 보기 문제를 물어보는 부분이 나왔다. 보기의 내용과 하나씩 대응시켜 주면 된다. ‘언 강물’이나 ‘저어가지 못하는 날아가지 못하는 숨죽이고 있는’은 보기에 나와있는 의사소통이 경직된 사회와 대응이 되며 빙그르르는 몸짓을 나타내므로 보기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일거다. 이 정도로 잡고 가면 된다.

선지 1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실의 주변부로 넘어가서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지의 사실 부분엔 자신의 참여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지네요.

선지성립조건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 선지의 주관 자체를 표현해줄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해야 합니다.

풀이
사실의 주변부엔 선지의 주관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의 참여만으로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한다는 표현을 나타내줄 수 있는 표현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 해당 선지는 적절치 않은 선지네요.

판단평가
지문으로 돌아갔어야 할 선지 유형입니다.

선지 2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선 웃음이나 몸짓을 통해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문에 나온 모든 표현들은 또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없더라도 웃음이나 몸짓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부분에 웃음이나 몸짓을 드러내는 표현만 있으면 정당화됩니다.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비웃는다는 표현이나 ‘빙그르르’라는 몸짓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네요. 바로 선지내에서 정당화가 됩니다.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되는 선지의 유형입니다.

선지 3

(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가)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라는 주제성을 줬습니다. 지문에서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조용한 고요한 등등 소리가 제한된 어떤 표현은 모두 의사소통이 제한된 모습을 표현해야만 하겠죠. 선지의 사실 부분에 이를 나타내는 단어만 있으면 바로 정당화가 됩니다.

(가) 풀이

'고요함'이란 표현은 보기가 없다면 여러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기의 주제성에 의해 해당 표현은 반드시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을 드러내야만 하겠죠.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됩니다.

(가)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 유형입니다.

(나)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나)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라는 주제성을 줬습니다. 지문에서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조용한 고요한 등등 소리가 제한된 어떤 표현은 모두 의사소통이 제한된 모습을 표현해야만 하겠죠. 선지의 사실 부분에 이를 나타내는 단어만 있으면 바로 정당화가 됩니다.

(나)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인 '숨죽이고 있는'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네요. 선지 내에서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 유형입니다.

선지 4

(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가) 선지성립조건

보기에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활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는 반드시 의사소통의 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야만 하겠죠. 선지의 사실 부분에 '활자'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으면 바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가)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서 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부분에서 명확하게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되어있고 명확하게 표현해줬으므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입니다.

(가)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 유형입니다.

(나)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나) 선지성립조건

3번선지와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으면 모두 다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나) 풀이

선지의 사실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정당화가 되네요.

(나)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 유형입니다.

(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가) 선지성립조건

지문에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반드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한된 상황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거 말고 다른 부정적인 대상이 있다면 보기를 통한 객관화에 실패한 것이겠죠. 선지의 사실 부분에 3번과 같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거나 부정적인 표현만 있으면 됩니다.

(가) 풀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정당화가 됩니다.

(가)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 유형입니다.

(나)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어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 내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네요 우선 선지 내에서의 판단을 시도해봐야합니다.

(나) 선지성립조건

지문에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반드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한된 상황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거 말고 다른 부정적인 대상이 있다면 보기를 통한 객관화에 실패한 것이겠죠. 선지의 사실 부분에 3번과 같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거나 부정적인 표현만 있으면 됩니다.

(나) 풀이

사실 부분의 저어가지 못하는 이라는 부정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는 의사소통이 제한된 상황을 드러내야만 하겠죠. 지문해설처럼 지문에서 미리 보기랑 연결시키는 행동을 취했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풀었을 것 같네요.

(나) 판단평가

선지 내에서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 유형입니다.



Q. 보기문제에서 선지의 사실부분은 다 맞다고 전제를 해야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본 문제의 2번선지를 볼까요? 선지의 사실 부분에 있는 비웃는다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 '로 표기를 해주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실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선지의 앞 부분, 선지의 사실부분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내곤 합니다. 사실의 디테일을 확인하도록 하는거죠. 그러나 비율이 거의 100개중에 2~3개꼴입니다. 거의 안나오는 편이죠. 이렇게 적은 비율인데 사실부분을 모두 의심하고 추가로 보기문제의 판단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총 10개의 선지판단을 해야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평소에 풀 땐 선지의 사실 부분은 맞다고 전제하고 풀고 만약 시험장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문제의 일반적인 풀이에 의해서 답이 안나왔을 때 "아 이 문제는 사실의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번부터 차분하게 선지의 앞 부분의 일치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해보세요.

<마무리하며>

보기문제가 어찌면 명확한 행동 영역을 가지고 있고 기출에서 보기를 통한 기준확립을 익힌다면 가장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론책 바로 다음으로 출시될 현대시 기출 분석집과 현대시 기출 특강 강의에서 한번 같이 적용해보며 보기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